

論 文

부산남항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워터프런트 개발방향⁺

조 용 수* · 조 은 석**

A Proposal on Waterfront Development Reflecting the Sense of Place of Pusan South Harbor Area

Y. S. Cho · E. S. Cho

Key Words : 장소(Place), 정위(Orientation), 정체(Identity), 부산남항(Pusan South Harbor), 수변공간(Waterfront)

Abstract

Although there are a lot of primary factors to be able to make characters and identities in Pusan South Harbor, badly planned development prevented enhancing the sense of place in urban waterfront. The point in the waterfront development is how to secure amenities based on identity and orientation; node, landmark, edge, path, distri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waterfront area of Pusan South Harbor and attempting to establish an identity through studying characteristics of 'places' in Pusan South Harbor. The place consists of two elements; orientation and identity, which can be explained the environmental totality, 'character' and 'space' respectively. The urban waterfront has strong characteristics which consists of land area, water area, and transit zone combining two areas. The place of Pusan South Harbor is analysed those four elements. We proposed objectives and criteria which can be used in enhancing the sense of this place.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지정 동아대학교 지능형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지원에 의한 것임

* 정희원,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부산남항은 6.25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인구팽창과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인해 부산이 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공간이 바다로부터 유리되어지는 등 부두와 바로 인접한 곳에 부두설비와 철도 등 환경악화 지구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 어항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비위락문화의 거점으로, 시민들의 야간문화, 역사적 대중적 삶의 현장으로서 부산의 근대로부터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의 워터프론트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 논리적인 관점으로서만 개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결과적으로 장소적 성격 및 부산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인자요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간과된 채 개발됨으로서 도시구성요소들이 무계획적으로 산재된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도심항만 워터프론트의 장소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소구조의 주요국면을 규명하고자하며,

둘째, 규명된 장소 구조를 바탕으로 도심항만 워터프론트의 장소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부산남항의 장소성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접근방향

인간의 거주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는 실존의 대상을 해석한 건축이론가 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현대 실존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데거는 철학이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인간의 “현존재”이며 더 나아가 존재일반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철학은 현존재의 현상이며 현존재의 존재이해를 통

하여 존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존재론적 “거주(dwelling)”개념은 건축, 지리, 도시, 조경분야 등의 현상학적 접근의 근간이 되고 있다.

Norberg-Schulz는 “GENIUS LOCI”에서 “거주는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간이 스스로 환경내에서 정위하고 환경과 함께 정체화 될 때 거주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환경을 의미있게 경험하게 될 때 거주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¹⁾ 본 연구에서는 도시장소의 이해를 위하여 정위-정체, 공간-성격, 경관-정주지, 자연장소-인공장소, 외부-내부(Norverg-Schulz, 1996)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장소구조의 체계적 정립을 위하여 정위-정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장소의 구조와 유형

2.1 장소구조

장소는 물리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장소의 성격이 규명되며, 구성요소들의 결합상태는 장소의 구조를 형성한다. 장소의 구조는 물리적 구성요소들의 관계 체계에 의하여 내재된 다양한 성격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성에 적합한 장소성 연구의 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을 응용하였다. 즉, 장소구조의 체계적 정립을 위하여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성체계로서 Kevin-Lynch의 ‘도시의 5요소’를 차용하였고, 성격적 구성체계는 Norverg-Schulz의 정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1.1 정 위 (Orientation)

정위의 문제는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이론적인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사였다. Kevin Lynch가 주장

1) Norburg-Schulz, C., “Genius Loci”, 민경호 외 3인 역, p.6, 1996

했던 도시의 구성요소인 “landmark, node, path, edge, district”의 개념은 인간에 있어 정위의 대상이었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 간의 지각된 상호관계는 총체적인 환경적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며, 이는 그것의 소유자에게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감이 제공됨을 주장하고 있다.²⁾ 이 체계가 약화된 곳에서 이미지 형성은 어렵게 되고, 사람들은 상실했다는 느낌을 받게된다. 존재의 상실은 움직이는 유기체가 주위환경에서 정위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으로부터 나온다.

K. Lynch는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환경적 질을 “이미지어빌리티”³⁾ 라고 부르고 있다. Norberg-Schulz는 “실존, 공간, 건축”에서 하이데거의 실존적 개념과 Piaget의 아동심리학의 연구⁴⁾들에 의해 밝혀진 일반적인 “조직화의 원리” 그리고 K. Lynch의 개념을 이론의 출발점으로 실존공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존공간이란 “비교적 안정된 지각적 쉼마의 체계, 즉 환경적 이미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Piaget의 쉼마의 조직원리에서도 나타나듯이, 초기에 조직되는 쉼마는 “중심”(근접관계), “방향 또는 통로”(연속관계), “구역 또는 영역”(폐합관계)이 성립하는데 달려 있으며, 이러한 위상기하학적인 쉼마는 K. Lynch에 의하여 결정된 기본적인 개념과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즉 정위의 기본적인 쉼마는 중심(근접관계), 방향(연속관계), 영역(폐합관계)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관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Basic schema of orientation

정위의 기본쉐마	중심 (근접관계)	방향 (연속관계)	영역 (폐합관계)
요소	Landmark Node	Path	District Edge

2.1.2 정체(Identity)

장소의 정체성은 위치와 정주지의 배열, 그리고 도시의 포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Norverg-Schulz, 1996). 여기에서 위치와 정주지의 배열은 자연장소를 가시화하며 나타나는 시각성의 측면이 주요한 의미를 지니며,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분위기는 지역적 역사적 정황들과 함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기본적인 의장요소들에 의해 성격지워진다. 즉 도시의 성격 및 분위기⁵⁾는 지각성, 의장성, 지역성 및 역사성을 반영하여 나타나며 이는 지방적인 질로서 방문객에게 감동을 주며, 도시의 정체성을 구체화 한다.

이와 같이 장소의 구조는 정위와 정체의 국면으로 이루어 지며, 이는 공간⁶⁾과 성격⁷⁾의 측면을 포함하는 환경적 총체로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를 요약하면 Fig .1과 같다.

2.2 장소구조의 유형

장소의 구조에 의한 결과로 특징지워지는 유형으로서 Norverg-Schulz에 의하면 낭만적장소, 구성적장소, 우주적장소에 의해 구분되는 범주로분류하고 있

2)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p. 46~90, 1959

3) 환경에 대한 생생하게 정제화 되고 강력하게 구조화된 고도로 유용한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형상이나 색깔 배치를 의미한다.

4) Piaget의 구조화된 세계라는 개념은 어린시절에 점차적으로 발달하며 더욱이 필연적으로 이러한 세계관은 일련의 공간개념의 발달을 포함한다고 논증한다.

5) 도시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의장요소 뿐만 아니라 장소로 묶거나, 방문객에게 특별한 지방적인 질로 감명을 주는 것이 바로 분위기(Stimmung)이다.

6) C. Norverg Schulz는 공간(space)을 장소를 형성하는 3차원적인 조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정위는 이의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정위를 “생물이 외계의 상태에 반응하여 그 몸의 위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환경, 사상, 습관 등에 대한 적응, 순응을 나타냄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7) 성격(Character)은 “어떤 장소가 가지는 가장 포괄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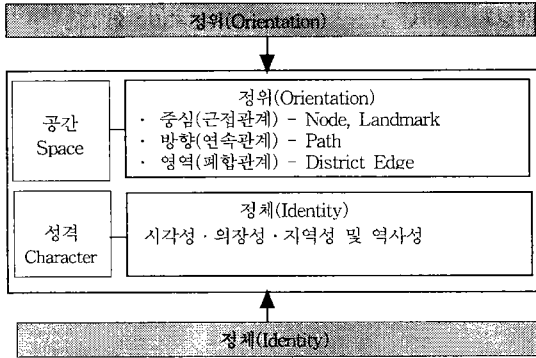


Fig. 1 Structuralization concept of 'place'

다.⁸⁾ 낭만적장소는 다중성과 다양성에 의해 구별된다. 이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유형이며, 기하학적이지 보다는 오히려 위상학적⁹⁾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적 수준에서 기본적 배치들은 조밀하고 모호한 군집이며, 자유롭고 다양한 열을 나타낸다. 구성적장소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장소는 구체적인 표현에 의하여 뚜렷한 개성이 발생하고, 유기적 생명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공간체계는 위상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속성들을 통합하고 있다. 우주적장소에 의해 형성되는 장소는 합리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는 엄격히 기하학적이며,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격자 또는 직교축의 교차로서 구체화된다. 장소의 각 유형별 분류의 특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ypes of 'place'

유형	낭만적장소	구성적장소	우주적장소
특징	· 다양성 · 위상학적 · 비이성적 · 모호한군집	· 개별성 · 위상학적, 기하학적 · 유기적 · 단순명료	· 균일성 · 기하학적 · 추상적 · 규칙적격자

3. 도심항만의 장소적 의미와 구조

장소와 그것을 둘러싼 상황이 상호 작용할 때 “내부”와 “외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장소는 외부로 “확장되고” 동시에 외부가 경계를 통과함으로써 전이대를 형성한다. 이 전이대는 “개구부”와 관계가 있다. 항(port)의 어원적의미(北見俊郎, 1975)를 살펴보면 군함의 포문, 상선의 하적구(荷積口), 현창(舷窓), 관구(關口), 입구, 문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도심항만 워터프런트는 육역과 수역을 구분하는 에지(edge)로서 그리고 장소구조의 내부와 외부사이의 전이대를 형성하는 개구부로서 관문의 의미를 지니며, 장소의 구조화된 질서체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심항만워터프런트 장소구조의 각요소별 특징은 Table 3과 같다.

그리고, 장소의 유형에 따른 장소구조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4. 부산남항의 장소성 및 개발방향

4.1 부산남항의 성격

부산남항은 1912년에 개시된 매립과 방파제의 축조로 그 기능이 시작되었으며, 해방이전 1930년대 부터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해방이후 1960년대 부터는 건설부의 주도로 물양장이 축조되었다. 1976년에 항만법의 제정으로 부산항에 포함된 후, 1975년에 부산시에서 부산남항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항만관리 사무소를 발족시켰다. 1991년에는 항만법 개정으로 호안항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일대의 도심지역은 행정, 업무, 금융, 상권, 무역, 교통,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발전기반을 구축하

8) “구성적장소”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C. Norverg Schulz는 “고적적(Classical)”장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Norverg-Schulz, 1976)

9) 언덕과 같은 자연요소와 정주지가 다양한 근접의 정도로 군집되거나 묶여짐. 언급된 공간적 성질들은 위상학적인 (Topological) 종류이다.

Table 3 The structure of place in urban waterfront

장 소 구 조		특 징
정 위	중심 (landmark) (node)	· Landmark와 node는 중심을 형성 · 워터프런트의 Landmark - 바다의 현관부에 위치 市の 인상 결정 - 해안에 도달하는경우에 목포로 이용
	방향 (path)	· 유보도에 의해 도시안에서 수변의 방향인지 수변으로 유도 · 가로와 유보도는 보행로의 역할뿐 아니라 시가의 개성이나 이미지형성 · 유보도는 시가지와 워터프런트를 연속적으로 연결 보행자를 수변으로 유도하여 어머니를 만끽하면서 거닐 수 있는 수변공간 형성
	영역 (district) (edge)	· 지역을 결정하는 물리적인 특징은 주제의 연속성 · 성질이 모여하나의 "특징군" 을 이룸 · 경계가 한정되면 지역은 더욱 뚜렷하게 형성 · 워터프런트는 도시지역의 최외곽부 가장자리(edge)형성 · 워터프런트는 배후지인 육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육역과 수역의 경계로서 분할
정 체	시각성 (위치) (배열)	· 일반적으로 땅의 움직임은 공간적 패턴을 가지화하는 (강과 바다) 체계와 일치 · 자연의 한정된 공간에 입지를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 · 대도시 항만으로 발달한 도시도 지형에 의한 가지화에 의해 장소의 Identity를 형성
	의장성 (성격)	· 도심항만의 워터프런트는 건물의 외장에 쓰이는 재료나 색체에 의해서 성격지워짐. · 서로 성격지워진 분절 즉 외부와 조화되는 통일성이 없으면 워터프런트장소를 창출할 수 없음
	지역성 및 역사성	· 워터프런트를 개발함에 있어, 기존의 역사성 및 지역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성격 및 정체성을 보존

Table 4 Typical characteristics of places in waterfront

장소의 유형	장소의 구조			정 체
	정 위		영 역	
	중 심	방 향		
낭만적 장소	landmark와 node는 규칙적이지 않고 다양한 위계를 가지면서 나타난다. · 낭만적 장소의 양한 열을 형성	가로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다양한 방향을 가짐	항만도시의 edge를 형성하는 워터프런트의 공간적 형태는 다양한 기복형성. 지역의 경계는 모호하게 나타나며 특징 군집에 의해 구분	정주지는 반도, 클러스트, 만(灣), 배후지의 구릉지와 같이 다양한 기복을 가지는 자연장소를 가지화 지역적성격의 의장요소는 기본적인 분위기에 의해 통일
구성적 장소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landmark는 유기적 생명성을 함축 · 도심항만의 정위체계는 위상학적이고 기하학적 속성들의 유기적결합	가로체계는 사선과 다양한 열 직교 축의 유기적 결합	워터프런트 edge의 공간적형태는 기하학적이며, 다양한 기복을 공유 지역의 경계는 군집, 사선, 직교축 등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구분됨	정체성을 가지는 도시구성요 소들에 의해 도시의 분위기 형성
우주적 장소	landmark는 수직적 높이에 의해 중심을 형성 · 우주적장소의 도심항만 정위체계는 엄격히 기하학적이며,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격자 또는 직교축의 교차로서 구체화	가로체계는 격자형 또는 직교축의 교차	워터프런트 edge의 공간적형태는 규칙적이며 기하학적인 특징을가지는 선형 지역은 기하학적구성에 의해 경계가 명확히 지워짐	수변의 정주지는 광활한 확장을 가지는 배후지를 가지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의장요소에 의해 특징지워짐

였으나 구역이 협소하고 높은 지가와 기존도심의 교통이 혼잡하여 산업시설, 유통, 서비스 상가 등의 유치에 어려운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부산남항은 항만구역이 협소한데다가 어선 등의 선박출입이 잦아 용량이 과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되었고, 이 지역 일대에는 각종 선용품, 자갈치 시장 등을 비롯한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일대 혼잡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해안 맞은 편에 위치한 영도조선소 일대에 영제한 선박 수리소들이 산재해 있어 시각적으로 불량한 환경이 산재해 있으며, 가로의 연결체계의 측면에서는 보행자 도로의 미비, 바다로의 시각적 오픈 스페이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유기적인 연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4.2 부산남항의 장소구조

4.2.1 부산남항의 장소유형

부산남항의 경우 낭만적장소와 우주적장소의 특징이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산항의 개발 초기 도시적 수준에서 기본적 배치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열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부산항의 매립과 배후지의 개발에 의해 기하학적이며, 규칙적인 격자로서 개발됨으로서 낭만적 장소의 특징과 우주적 장소의 특징이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남항의 수변을 형성하고 있는 자갈치 지역과 배후지인 피프거리와 국제시장 일대는 기하학적 구성에 의해 가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적 장소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건물들의 배치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위요되고, 다양한 열로서 나타나고 있음으로서 낭만적 장소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의 유기적인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남항을 장소성이 풍부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낭만적 장소와 우주적 장소로서의 특징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며 부산남항을 매립하거나 무작위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역사적, 장소적 특성을 가진 도시공간들을 활성화하고 연계

성을 살린 수변 개발 및 도시 계획적인 접근을 포함하는 도시의 장소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부산남항의 장소성을 앞서 연구했던 정위와 정체의 체계로 분석하고자 한다.

4.2.2 정 위(Orientation)

부산남항의 정위체계는 용두산타워, 영도대교에 의한 landmark와 충무동 광장과 구시청앞 광장의 node에 의해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의 교통 주축인 구덕로를 중심으로 교통동선을 이루며 이와 평행하는 방향으로 자갈치시장 일대의 수변 유티도와 광복로, 피프거리 등 성격지워진 path에 의해 남향일대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변으로의 원활한 view corridor의 형성이 미흡하여 수변으로의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남항의 특징지워진 영역(district)으로 자갈치 시장영역과 남포동 일대의 극장가와 상업시설에 의한 위락영역이 형성되어 있다. 자갈치 시장영역은 해안과 접하여 평행하게 형성됨으로써, 도시의 edge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Fig. 2, Fig. 3,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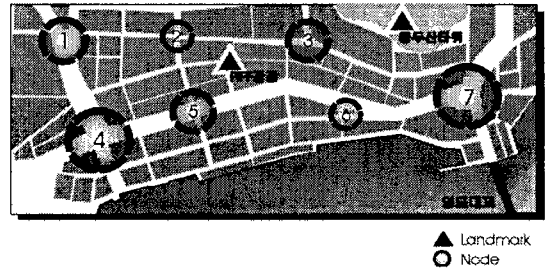


Fig. 2 Landmarks and n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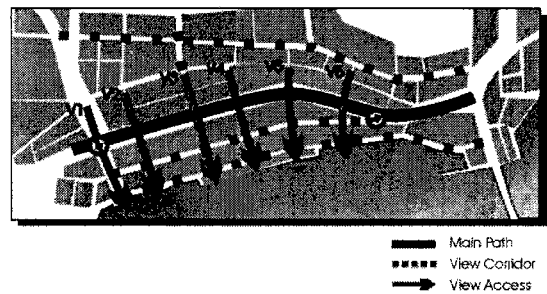


Fig. 3 Pa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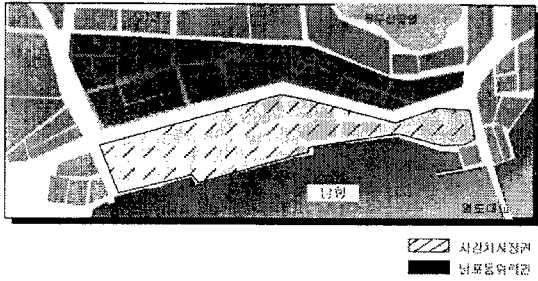


Fig. 4 District and edge

4.2.3 정체(Identity)

용두산을 배경으로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건물군의 배열과 skyline에 의해 형성되는 시각성은 부산남항 일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건물의 층수는 2층에서 5층사이의 중규모 건물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각회랑은 구덕로와 광복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수변방향으로의 시각회랑은 가로별 성격규명과 더불어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요소이다. 부산남항의 성격 형성하는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건물군의 형태적 특징과 색채의 분포는 무채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외벽의 재료는 타일이 가장 많으며, 철제(알루미늄판넬, 법랑포함) 석재 및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¹⁰⁾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국제시장, piff거리, 광복로, 구두골목 및 건어물시장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부산남항 일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각 요소간의 문화적 역사적 적층과 함께 총체적으로 부산남항의 성격 및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남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는 Table 5과 같다.

4.3 장소성의 제고를 통한 부산남항의 활성화 방안

앞서 언급 했듯이 현상학적 논의 속에서 장소성에 대한 규명과 이에 따른 분류체계로 Table 6과 같은 활성화 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다.

Table 5 Elements of identities in Pusan South Harbor

요 소	특 징		
시각성	스카이라인	건물의 층수는 2층 3층 4층 5층이 전체의 90%를 이룸, 중규모 건물의 군집	
	시각회랑	구덕로 광복로는 부산남항의 배후지를 형성하는 남포동 일대의 주요교통동선이며 동서방향의 시각회랑형성	
	수변방향	동서방향의 강한 도로에 의해 수변방향은 동선 및 시각적 측면에서 단절적 요소가 많음	
의상성	외장재료	외벽의 재료는 타일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철제(알루미늄판넬, 법랑포함) 석재 및 콘크리트외벽순	
	색채	무채색이 주조를 이루며, 유채색의 경우 주황계열과 남색계열이 나타남.	
지역성 및 역사성	자갈치시장	1924년 8월 남빈시장으로 개설 연근해 어선들의 수산물집산지로 어항기능, 노점상들의 활어판매 기능이 혼재하여 오늘에 이룸	
	영도대교	일제시대 때인 1931년 착공하여 1934년에 개통된 부산최초의 연육교로서 역사적, 문화적, 랜드마크	
	국제시장	일용품 전자의류등 부산의 구상권 형성	
	piff거리	남포동 일대의 극장거리는 1996년 제1회 부산국제 영화제 출범 이후 문화의 거리로 조성	
	광복로	용두산 공원을 감싸듯이 대청동과 시청을 연결하는 2차선로	
구두골목	구두전문 상가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piff 거리와 함께 부산의 역사성을 반영		

10) 도시발전연구소,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연구, 부산시, 1992.

Table 6 Objectives of development in Pusan South Harbor

구분		목적 (Objectives)
정위	중심 landmark node	· 자갈치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의 도입 · 기존 node의 성격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개발
	방향 path	· 도심에서 해변으로의 시각적 도보적 연속성 강조
	영역 edge district	· 비교적 명확하게 영역 구분이 되어 있음
정체	시각성	· 기존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skyline의 재조정 · 부산남항의 수변을 향한 path들의 장소적 성격 규명 및 view corridor 형성
	의장성	· 수변의 개방성을 고려한 의장요소 및 색채 사용 (pilotie의 도입 및 setback 처리)
	지역성 및 역사성	· 지역성 및 역사성을 지닌 장소들의 활성화

4.3.1 정위

남항의 정위 체계에 있어서 landmark적 요소로는 용두산 타워, piff광장, 자갈치 시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갈치 시장은 높은 인지도와 비교적 넓은 공간적 범위에 비하여 물리적 상징요소가 미흡하다. 그리고 해안선과 평행 방향으로 강하게 성격 지워진 path (구덕로)에 의해 남항 일대의 방향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수변으로의 원활한 view corridor의 형성이 부족하다. 이에 도심에서 해변으로의 시각적·도보적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들의 확충(점적 요소로서의 상징적 object 설치 및 면적요소로서 picture frame적 입구 배치)이 절실하며, 또한 자갈치시장, 국제 시장 등 특징지워진 지역간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본 연구의 범위내에 존재하는 node로서는 Fig.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7개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도시의 결절점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node는 교통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성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의 컨텍스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각 node들의 특성화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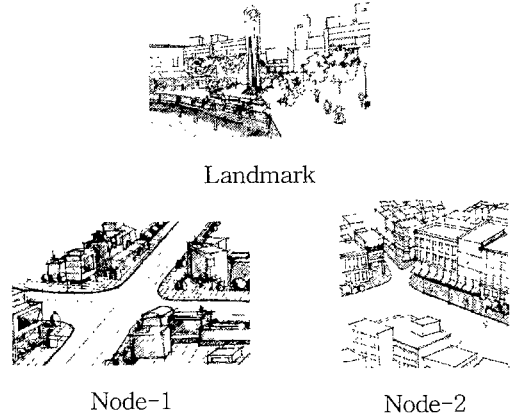


Fig. 5 Examples of landmark & node in Pusan South Harbor







4.3.2 정체(Identity)

1) 시각성

남항의 배후지를 형성하고 있는 광복로 및 구덕로는 남포동 일대의 주 교통동선이 되고 있으며, 동서방향의 view corridor을 형성시키는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들의 폭이 매우 넓고 도시교통 간선도로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계로 광복동일대로부터 수변 방향으로의 동선 및 시각적 연속성의 측면에서는 단절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기존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skyline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수변을 향한 path들의 장소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view corridor를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내에 존재하고 있는 도심에서 해안방향으로의 가능성 있는 view corridor는 Fig.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섯 개의 가로를 들 수 있다. 각 가로는 Table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격을 규명할 수 있으며, 부산 남항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발요소가 될 것이다.

Table 7 Chracter of view corridors

구 분	가로의 성격
V1	 <p>토성동에서 남포동을 거쳐 중앙로로 이어지는 교통중심로로서 광복의 도로는 view corridor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나 주차장에 의해 차단되어짐</p>
V2	 <p>극장가의 유동인구에 비하여 활성화 되지 못함</p>
V3	 <p>국제시장 → piff광장 → 자갈치 시장으로 이어지는 중심동선 형성</p>
V4	 <p>piff거리의 정문과 상점 탑이 있는 거리로 성격 지워진 문화의 중심거리 형성</p>
V5	 <p>자갈치 시장지역으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담당</p>
V6	 <p>광복로와 연계되며, 건어물 시장과의 연계성 제고가 요구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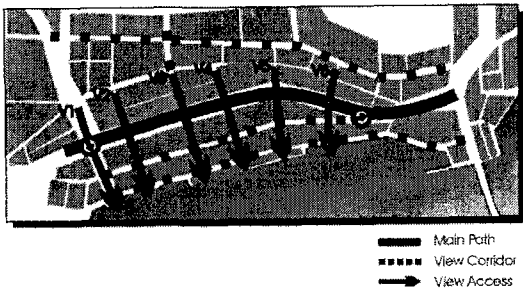


Fig. 6 Possible view corridors of Pusan South Harbor

2) 의장성

남항의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건물들은 지극히 기능 위주의 형태적 특성과 단조로운 색채들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는 남항이라는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로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변의 개방성을 고려한 의장요소(pilotis 및 setback)를 이용한 가로변 건물에 있어서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 및 연속성의 확보와 수변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색채의 사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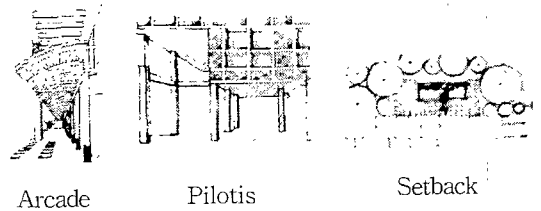


Fig. 7 Examples of design elements enhancing identities of Pusan South Harbor

3) 지역성 및 역사성

1. 자갈치 시장

연근해 어선들의 수산물집산지로서 어항기능, 노점상들의 활어 판매기능이 혼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자갈치 시장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남항 일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특성에 부합된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러한 성격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향토성의 보존과 함께 보행자에 의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의 확충 및 기존 시설의 보수(일반적 보행자 및 유모차, 노인, 신체 장애자등 전반적 이용이 용이할 수 있게 보도의 표면 마무리에 대한 고려와 시장 기능 위주의 단편적인 배치가 아닌 이용자를 위한 휴게 공간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접촉의 장으로서의 가로 장치물의 확충)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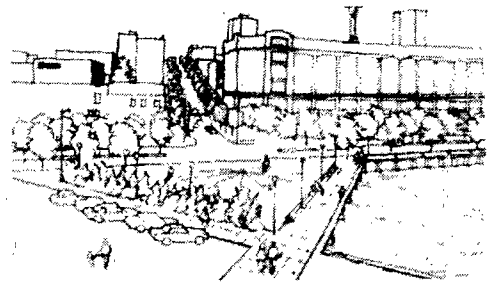


Fig. 8 Example sketch of Za-gal-chi market redevelopment

2. 영도 대교

부산 최초의 연육교로서 역사적,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영도 대교는 이러한 상징적 부분과 더불어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즉 국제시장→ piff광장→ 자갈치 시장→ 영도대교라는 자연스러운 동선의 유도를 위한 기존 path의 개선(도보적 연속성을 위한 요소의 확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결과로서 제시 가능) 및 대교라는 기능적인 부분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조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의 디자인(영도 대교 하부공간의 활용 방안 모색 및 다리 상부에서의 조형적 가로 시설물의 설치)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국제 시장

일용품 전자 의류 등 부산의 구 상권 형성의 요충지로서의 국제 시장의 위상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국제 시장을 방문하고 있는 인근 동남아 및 일본 여행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의 부재 및 시장내 공간의 협소함은 대외적인 관광 명소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요소들로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시장의 관광 명소화를 위한 방문객 편의 시설(숙박 시설 및 안내 시설)의 확충 및 관광 상품의 개발(전통적 시장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로 시설물의 설치), 그리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보행 공간의 수평적 확충 및 수직적 이동에 따른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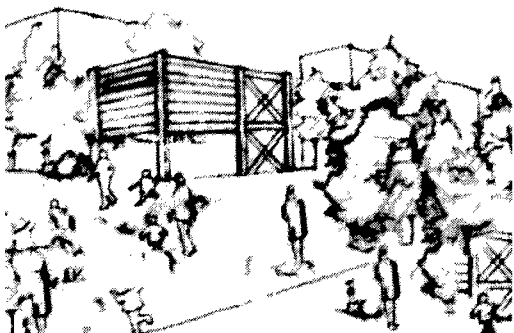


Fig. 9 Example sketch of information center in international market redevelopment

물의 상부층과의 연계성 모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Piff 거리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출범 이후 문화의 거리로 조성된 piff광장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부산의 문화적 전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piff광장은 기존의 밀집된 극장가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규모가 다소 협소하며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시설의 합목적적 변경이 요구된다. 이에 광장으로서 적정 규모의 확충(기존 건물의 저층부 공간의 공적 공간으로 활용 및 향후 건축될 건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 요망) 및 이러한 확충된 공간 내 보행자를 위한 휴게 시설 보완, 그리고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로 장치물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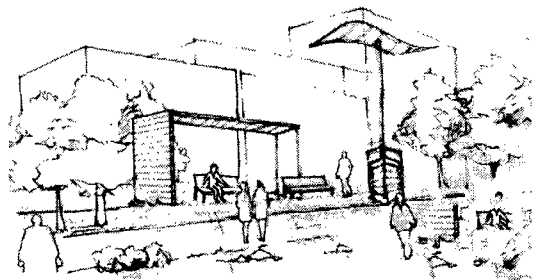


Fig. 10 Example sketch of Piff street redevelopment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항만워터프런트의 장소성을 분석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현상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장소구조의 주요국면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장소의 구조화된 관점을 바탕으로 도심항만 워터프런트의 장소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부산남항의 장소성과 이

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상학적 관점에서 도시의 장소구조는 정위와 정체의 국면으로 이루어지며, 공간과 성격의 측면을 포함하는 환경적 총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장소의 구조에 의한 결과로 특징 지워지는 유형으로서, 낭만적장소, 구성적장소, 우주적장소에 의해 구분되는 범주로 분류된다.

부산남향의 경우 낭만적장소와 우주적장소의 특징이 혼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남향의 수변을 형성하고 있는 자갈치 지역과 배후지인 piff거리와 국제시장 일대는 기하학적 구성에 의해 가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우주적 장소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건물들의 배치는 용두산을 중심으로 위요되고, 다양한 열로서 나타나고 있음으로서 낭만적 장소로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나 이의 유기적인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남향은 도시의 교통 주축인 구덕로를 중심으로 교통동선을 이루며 이와 평행하는 방향으로 자갈치시장 일대의 수변 유보도와 광복로, piff거리등 성격지워진 path에 의해 남향일대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수변으로의 원활한 view corridor의 형성이 미흡하여 수변으로의 접근성의 부족등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남향의 경우 새로운 장소를 매립하거나 무작위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가진 도시공간들을 활성화하고 연계성을 살린 수변 개발 및 도시 설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위의 측면에 있어 자갈치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landmark의 도입과 주변의 컨텍스트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각 node들의 특성화 및 도심에서 해변으로의 시각적 도보적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는 view corridor의 형성과 자갈치 시장, 국제시장 등 특징지워진 지역간의 컨텍스트를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체의 측면에서 수변의 개방성을 고려한 시각성 및 의장요소의 사용으로 지역성 및 역사성을 지닌 장소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시각성의 측면에서 기존 가로축을 따라 형성된

skyline을 재조정함과 동시에 수변을 향한 path들의 장소적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view corridor를 형성하고, 수변의 개방성을 고려한 의장요소(pilotis 및 setback)를 이용한 가로변 건물에 있어서의 시각적, 공간적 확장 및 연속성의 확보와 수변공간으로서 정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색채의 사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영도대교, piff거리는 부산남향의 오랜역사와 함께 부산남향 일대의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함에 있어 지리적 특성에 부합된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 지역의 성격을 보존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부산남향의 장소적 성격 및 정체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도시발전연구소, “광복로 가로경관 개선연구”, 부산시, 1992.
- 2) 부산발전연구원, “해양워터프런트의 개발 및 보전”, 부산광역시, 1998.
- 3) 조용수, 조은석, 이호수, “부산북향에서의 도심형 워터프런트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학회지 제13권 제2호, 1999.
- 4) Norverg-Schulz, C.,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이정국, 진경돈 역,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1999.
- 5) Norverg-Schulz, C., “GENIUS LOCI”, 신경호, 배용규, 임희지, 최강립 역, 장소의 혼, 태림문화사, 1996.
- 6) Norberg-Schulz, C.,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1997.
- 7) Yi-Fu Tuan, “Space and Place”, 구동회, 심승희역, 대운출판사, 1995.
- 8) 北見俊郎, “港灣總論”, 成山堂, 1975.
- 9) グ格拉斯.M.レン, “Urban Waterfront Development”, 構内憲久 監譯, 都市のウォーターフロント開發, 鹿島出版會, 1986.
- 10) 石澤卓志,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再生”, 東洋

- 經濟新報社, 1987. 12.
- 11) 日經産業新聞,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開發”, 清文社, 1988. 9.
 - 12) 川端直志,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時代”, 都市文化社, 1987. 4.
 - 13) 構内憲久,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現況と展望, ウォーターフロントの計劃とデザイン”, 新建築社, 1991.
 - 14) Burghardt, A. F., “A Hypothesis About Gateway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61 no.2, 1971.
 - 15) Breen, A. and Rigby, D., “The New Watertfront”, 1981.
 - 16) Fitzgerald, A., “Waterfront Planning and Development”, 1986.
 - 17)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1959.
 - 18) Maine, P., “Port Architecture”, 1996.
 - 19) MeKenzie, R. D., “The Metropolitan Community”, New York : Russel & Russel, 1933, reissued, 1967.